

 POSRI 보고서

사우디에 대한 7가지 오해와 기업진출시 시사점

임정성 수석연구원, 글로벌연구센터 (jsimm@posri.re.kr)

[목 차]

1. 사우디의 위상
2. 7가지 오해와 진실
3. 우리 기업에 대한 시사점

Executive Summary

- 사우디는 MENA(중동·북아프리카) 지역에서 정치·경제·군사·문화적 맹주국이며, 우리 나라에도 에너지 공급원과 건설시장으로서 매우 중요
 - 역동적으로 변하고 있는 사우디 시장에 대한 진출전략 수립과 사업기회 발굴을 위해 ‘사우디에 대한 7가지 오해’를 풀고 진상을 바로 볼 필요가 있음
- 첫번째 오해 : 사우디는 세계 최대 원유 매장 국가로서 온 국민이 부자?
 - 인구 급증 결과로 인당 GDP(2014)가 25,400\$로 우리 나라(28,740\$)보다 낮음
- 두번째 오해 : 고유가와 재정흑자가 지속되어 건설 발주를 지속할 것이다?
 - 최근 수년간 배럴당 원유 가격이 100 달러 이상 지속된 것은 매우 예외적 (수요 급증+지정학적 리스크 확대)
 - 1983년에서 2002년 사이 단 한 해를 제외하고 모두 재정적자를 기록
- 세번째 오해 : 광활한 사막 땅에서 석유가 계속해서 평평 쏟아질 것이다?
 - 사우디가 유전별 잔존 매장량과 유전 상태, 생산 실적을 공개하지 않아 어느 날 갑자기 생산이 멈출 수도 있다는 경고도 나옴
- 네번째 오해 : 사우디는 원유를 사막에서 뽑아 올려 그대로 수출한다?
 - 생산한 원유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정유, 석유화학, 화학, 제약 등 다운 스트림 분야로 확장하며 수직일관화를 추진. 정유생산 능력은 세계 7위
 - 자동차/부품, 플라스틱, 금속/광물, 태양에너지, 제약 등 5대 산업 육성 중
- 다섯번째 오해 : 사우디는 우리 건설사들의 안정적인 수주 텃밭이다?
 - 2013~14년 2년간 사우디 프로젝트에서 2조원 이상 손실 추정
 - 저가수주, 경험부족, 건설관리 역량 부족에다 고급기술과 원가경쟁력 취약
- 여섯번째 오해 : 사우디 왕정체제는 계속해서 공고할 것이다?
 - 신임 국왕이 측근 중심으로 요직에 배치, 다양한 의견수렴 위원회 등 폐지
 - 경제침체와 재정적자로 실업률 급등시 반정부운동 촉발 가능성도 배제못함
- 일곱번째 오해 : 계속해서 수니파를 대표하는 맹주국가가 될 것이다?
 - UAE, 카타르의 경제적 영향력 증대와 IS 급부상으로 상대적 위상 하락
- 사우디에 대한 ‘7가지 진실’을 이해함으로써 낙관적인 시장전망 대신 실제 시장환경과 사회문화 특성을 철저히 분석하여 진출전략을 수립할 필요
 - 진출업종이나 진출방식에서 차별화 포인트를 찾고, 장기적 안목에서 글로벌 역량을 키우며, 현지시장을 직접 경험 학습하는 것이 바람직

1. 사우디의 위상

□ 사우디 아라비아는 4억명 인구의 MENA(중동·북아프리카 18개국) 지역에서 경제는 물론 정치군사, 문화적으로도 맹주국의 위상 보유

○ 2014년 GDP 규모가 7,780억 달러로 MENA 1위, 세계 19위로 지역을 대표하여 G20 회의에도 참여

- 원유 매장량 세계 2위, 원유 생산량 세계 2위(2013), 수출량 세계 1위(2012)로서 1970년대 이후 국제유가 조절자 역할 담당

○ 2014년 국방비가 808억 달러 규모로 미국, 중국에 이어 세계 3위

- 1979년 이란의 이슬람 혁명 발발 계기로 GCC(걸프협력회의) 창설 주도
-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 시 참전, 바레인 ‘아랍의 봄’ 시위에 군대 파견

○ 이슬람 종주국이자 수니파 맹주로서 이슬람권 영향력이 지대

- 2011년 1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이집트, 예멘, 요르단, 바레인, 오만, 모로코 등 MENA 국가에 227억 달러 지원
- 이슬람 최대 성지인 메카와 메디나 순례객을 중심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2013년에 1,320만 명에 달함

□ 우리 나라에게도 사우디는 경제협력 면에서 매우 중요한 국가

○ 원유를 비롯하여 최대 에너지 공급국가이며, 최대 건설수주 시장임

- 무역규모(2014년) : 원유, 나프타 중심의 수입 367억 달러(세계 4위), 자동차, 기계, 철강 중심의 수출 83억 달러(세계 14위), 무역적자 규모 3위

<사우디와 주요 MENA 국가와의 비교>(2014년)

	사우디	이란	이라크	UAE	이집트	알제리
면적(천km ²)	2,150	1,648	437	84	1,001	2,382
인구(백만명)	29.4	81.0	32.6	5.6	85.0	38.8
GDP(bn \$)	777.9	402.7	232.2	416.4	284.9	227.8
인당GDP(\$)	25,401	5,165	6,474	44,771	3,337	5,886
원유매장(세계)	2위	4위	5위	7위	27위	17위
가스매장(세계)	6위	2위	11위	17위	21위	9위

자료: 수출입은행, 미국 EIA

- 건설수주 금액(1970년 이후 누계) : 1,741건, 1,309억\$(세계 1위, 비중 19.1%)

2. 7가지 오해와 진실

□ 매우 높은 위상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에는 사우디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며, 막연히 ‘중동의 석유 많이 나는 사막국가’로만 인식

○ 우선은 사우디의 보수성과 폐쇄성으로 인해 정보가 부족

- 교보문고 홈페이지에서 ‘사우디’로 검색하면 단행본 1개(번역서)에 불과, 사우디 영화도 작년에 상영된 ‘아즈다’ 1편 뿐
- 이란 단행본이 10권 이상, 이란 영화는 수십 편에 이르는 것과 대조적
- 사우디의 폐쇄성으로 인해 유학한 전문가들이 없고 여행도 자유롭지 않아(특히 여성의 경우) 국내에 정보가 양산되지 못함

○ 여기에 사우디 시장 변화에 대한 관심 부족과 수동적 태도도 한몫

- 사우디는 단순한 원유 수입시장이고, 공사 2~3년 후 떠나는 건설수주 대상국으로 고정관념화 되어 있어 적극적인 시장이해 노력이 부족
- 최근 사우디 시장이 역동적으로 변하고 있어 시각을 전환하고 적극적으로 시장을 학습하여 사업기회 발굴과 노하우를 축적하는 것이 필요

□ 첫번째 오해 : 사우디는 세계 최대 원유매장 국가로서 온 국민이 부자일 것이다?

○ 사우디의 2014년 인당 GDP가 25,400 달러로 우리 나라(28,740 달러)보다 낮고, GCC 국가 중에서도 오만을 제외하면 가장 낮음

- 인구급증 시기(1980년대)에 국제유가 급락에 따른 마이너스 경제성장으로 인당GDP가 1980년 16,716\$에서 1990년 7,196\$로 급감
- 인구 급증으로 청년 실업률이 30%를 넘어서면서 자국민 의무고용제도(30% 이상)인 Saudization 시행
- 외국인 인구비중이 30%(800만~1천만 명)가 넘어 자국민 대 외국인 노동자간 경쟁이 촉발되면서 사회적 긴장 야기
- 참고로 왕족 규모는 15,000명, 하지만 대부분의 권력과 부는 이중에서도 핵심 로열패밀리라 부를 수 있는 약 2,000명에 집중

<사우디의 인구증가 추세 및 전망>

	1980	1990	2000	2010	2020	2030
인구(백만명)	9.8	16.2	20.1	27.3	32.3	35.6
연평균 증가율	n.a.	5.1%	2.2%	3.1%	1.7%	1.0%

자료: IHS(2015.2.15)

□ 두번째 오해 : 사우디는 고유가 영향으로 계속해서 성장하고 대규모 건설공사를 발주할 만큼 재정 흑자를 지속할 것이다?

- 2000년대 중반 이후 중국발 특수로 유가가 상승하고,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에 배럴당 100 달러 이상 지속된 것은 매우 예외적인 상황
 - 1984년 이후 WTI 유가 추이를 보면, 최대 145.3\$, 최소 10.4\$, 평균 41.7\$
 - 작년 4분기 이후 촉발된 치킨게임으로 국제유가가 50% 이상 떨어진 상태이며, 올해 2월 25일 현재 50.99 달러(WTI) 기록
 - 금년 WTI 평균유가(F): 골드만삭스 47.15\$, 바클레이스 42\$, EIA 62.75\$

<WTI 국제유가 추이>



자료: 국제금융센터(2015.2.26)

○ 1983~2002년 기간 중 19번이나 재정적자를 기록할 정도로 만성적

- 2015년에도 지출 규모를 늘려 적자예산을 편성, 향후 유가가 90 달러 이하인 경우 적자 지속이 불가피(2014~2018년 적자 예상, IHS)
- 2015년 재정균형 유가(IMF, 2014.10): 쿠웨이트 54\$, 카타르 60\$, UAE 77\$, 오만 103\$, 사우디 106\$, 바레인 127\$, 이란 131\$

□ 세번째 오해 : 사우디의 광활한 사막 땅에서 석유가 계속해서 평평 쏟아져 나올 것이다?

- 사우디 영토는 아라비아 반도의 2/3를 차지하지만, 원유가 생산되는 곳은 동부 걸프만의 극히 일부 지역에 편중
 - 1938년 동부지역에 있는 담만 유전에서 석유가 본격 생산되기 시작
 - 100개 이상의 대형 유전과 가스전이 있지만, 동부지역 5대 유전이 생산량의 90% 차지(세계 최대 가와르 유전이 총생산의 60% 이상 담당)

○ 유전이 개발된 지 50년이 넘어 고갈 가능성을 걱정해야 하는 상태

- 2013년 현재 매장량이 2,602억 배럴(ARAMCO 발표)로 하루 800만~900만 배럴을 생산할 경우 향후 80~90년간 생산 가능한 것으로 추정
- 일생산량(만배럴): '10년 791 → '11년 907 → '12년 951 → '13년 941
- 그러나 『사우디 석유의 비밀』의 저자 M.R. 사이먼스는 다른 국가들의 가동 연수를 고려할 때 사우디 유전도 '갑자기' 멈춰 설 수 있다고 경고
- 사우디 정부가 유전별 잔존 매장량과 유전 상태, 생산 현황 등에 대해 발표를 하지 않아 추정치만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상황

<사우디 5대 유전의 생산능력 현황(2012)> (천 배럴)

	가와르	사파니야	쿠라이스	마니파	샤이바
일 생산능력	5,800	1,200	1,200	900	750
위치	onshore	offshore	onshore	offshore	onshore

자료: US EIA

□ 네번째 오해 : 사우디는 세계 1위 원유 수출국으로, 원유를 사막에서 뽑아 올려 그대로 수출한다?

- 1974년 이후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 원유 생산국으로 부상하였고 수출도 1위지만, 원유를 정제한 정유 생산능력도 세계 7위 수준(2013년)
 - 2013년 현재 8개 정유공장 보유. 합계 생산능력 250만 배럴/일
 - 2017년까지 2개 정유소 추가 가동으로 생산능력이 300만 배럴로 증가 시 정유 생산능력 세계 5위, 수출 세계 2위로 부상 전망
 - 사우디는 미국, 중국, 한국(S-Oil), 일본 등 해외에서도 총 240 만 배럴/일의 정유능력 확보(지분비례 능력 90 만 배럴)
 - 사우디는 정유산업뿐 아니라 후방산업인 석유화학, 화학, 제약 산업까지 수직일관화를 추진하여 부가가치를 더욱 제고
 - 최근 우리 나라 정유업계가 타격을 받고 있는 이유이기도 함
- Post-Oil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산업 다각화 정책을 적극 추진 중인 가운데 제조업 비중을 11%(현재)에서 20%(2025년)까지 증대시킬 계획
 - ‘국가산업클러스터개발계획’에서 자동차/부품, 플라스틱/포장재, 금속/광물, 태양에너지, 제약 산업을 5대 클러스터 산업으로 선정
 - 자동차 중에서 트럭 등 상용차는 글로벌 메이커 통해 조립생산을 하지만, 승용차는 자체개발 모델을 생산하여 기술력을 확보한다는 방침
 - 당초 5대 클러스터에 포함되었던 가전산업은 제약산업으로 대체

- 산업 다각화 정책은 원유의존도 감축 이외에 대규모 청년층 고용 창출과 선진 기술력 확보 효과도 기대

□ 다섯번째 오해 : 사우디는 풍부한 오일머니를 벌 수 있는 우리 나라 건설사들의 안정적인 수주텃밭이다?

○ 건설업계가 최근 몇 년간 사우디에서 대규모 손실을 기록하며 고전 중

- 2013년과 2014년 합계로 2조원 이상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되는데, 그 배경을 보면 국내업체간 출혈경쟁에 의한 저가 수주가 주요인
- 그러나 경험 부족과 건설관리 역량 부족도 주요 원인으로 지적
 - 사우디 발주처는 일정관리, 품질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가 엄격하고, 하자가 있을 경우 패널티 부과
 - 중동에서 경험이 많은 삼성물산도 쿠라야발전소 건설 중 홍수가 발생해 일정이 지연되었는데, 발주처가 자연재해를 인정해 주지 않았음
- 2013년 Saudization 제도를 강화한 ‘Nitaqat’ 제도를 시행했는데, 이로 인해 건설사들이 외국인 노동자 공급 차질과 비용 상승을 경험
 - Nitaqat제도는 자국민 고용 실적별로 등급을 매겨 비자발급 및 갱신, 유예기간, 타사 근로자 이관 채용 등에서 인센티브나 패널티를 차등 부과

○ 사우디 건설시장은 세계 유수 건설사들의 최대 격전장으로 실력이 없거나 원가 경쟁력이 없으면 살아 남기 어려움

- 최근 일본과 유럽 건설사들이 자국 통화의 평가절하로 원가경쟁력이 향상돼 수주를 다시 확보하고 있음
 - 2000년대 중반 이후 일본과 유럽 건설사들은 기술력은 좋지만 원가경쟁력에서 밀려 한국업체에 시장을 빼앗겼음
- 터키와 인도, 중국 건설사들은 저가격을 무기로 사우디 시장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, 사우디 로컬사들도 건축토목 공종에서 경쟁력이 있음
 - 사우디 최대 건설사인 빈라덴그룹(SBG)의 경우, 세계 최고층 빌딩으로 제다에 건설중인 ‘Kingdom Tower(최대 높이 1km, 168층, 2019년 완공 예정)’의 주 건설업체로 선정
 - Kingdom Tower는 알 왈리드 왕자가 두바이 부르즈 칼리파(최고 높이 830m, 163층)를 의식하여 2008년부터 건설을 추진

□ 여섯번째 오해 : 사우디의 왕정체제는 계속해서 공고할 것이다?

- 사우드 가문은 1932년 건국 이래 와하비즘을 따르는 보수적인 성직자 집단과 연합하여 안정적인 통치 기반을 확립
 - 왕실은 중앙행정부와 지방행정부, 입법부를 장악하고, 성직자 집단은 사법부, 교육 및 종교 분야를 맡아 이원적인 권력구조로 지배
 - 오일머니 파워, 미국과의 동맹, 막대한 무기 보유, 점진적 개혁 등에 힘입어 수많은 내외부 위협과 도전들을 극복
- 그러나 신임 살만 국왕이 최근 측근세력 중심으로 요직에 배치해 앞으로 왕실 내 非수다이리파의 반발 가능성도 있음
 - 수다이리파 출신의 살만 국왕이 非수다이리 출신의 무크린 왕세제에게 당연직인 제1부총리 이외에 별도의 직책을 맡기지 않음
 - 반면, 같은 수다이리파에서 부왕세제(모하메드 빈 나예프)를 책봉하고 내무부 장관과 신설한 정치안보위원회 위원장직을 부여
 - 자신의 아들(모하메드 빈 살만, 35세)을 국방장관 겸 왕실 비서실장에다 경제발전위원회 위원장 자리에까지 앉혀 권력 집중현상이 심화
 - 또한 전임 압둘라 국왕이 설치한 12개 분야 위원회를 폐지하고, 2개 위원회만을 신설해 다양한 의견 수렴 창구를 축소
- 향후 경제침체와 재정적자로 실업률이 더 높아지고 서민 유화책을 펼칠 여력이 부족할 경우 반정부 운동이 촉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
 - 사우디에도 개혁 운동과 반정부 세력이 있지만, 구심점이 부족하고 정부가 풍부한 오일머니로 유화책을 전개해 세력이 약함
 - 3대 세력 : 수니 개혁파(무슬림형제단 이념), 시아파 개혁운동(군주제 유지, 민주개혁 요구), 자유주의 세력(입헌군주제, 삼권분립, 직접선거 요구)
 - 2011년 ‘아랍의 봄’을 차단하기 위해 각종 연금 및 복지혜택 부여, 실업 급여, 최저임금제 도입 통한 사회와 정권 안정 도모 경험
- 미국은 국제유가와 지역 안정을 위해 정치체제와 인권문제를 방조했으나, 앞으로 전략적 가치가 약화될 경우 민주주의 요구 가능성 있음
 - 현재 전 세계에서 입법, 행정, 사법 3권을 독점하고 종교수장까지 겸하는 신정일치의 절대왕정 국가는 찾아보기 힘들
 - 엄격한 와하비즘 교리를 따르고 있어 이슬람 관행법인 샤리아를 우선시
 - 영화나 공연, 춤과 노래를 금하며, 태형이나 참수형, 투석형도 집행
 - 여성에 대한 보수성이 심해 사회참여가 제한(의료, 교육 분야 등에 국한, 노동참여율 약 18%). 여성 혼자서 여행이나 운전, 쇼핑 등을 하지 못함

□ 일곱번째 오해 : 사우디는 시아파 맹주인 이란과의 경쟁에서 계속해서 수니파를 대표하는 맹주국가가 될 것이다 ?

- 1986년 칭호를 ‘국왕 폐하(His Majesty)’에서 ‘2개 성지 수호자 (Custodian of the Two Holy Mosques)’로 변경하면서 이슬람 종주국의 위상 제고를 추진
 - 그런데 2014년 6월 신정일치의 칼리파 국가를 선포한 ‘이슬람국가(IS)’가 나타나 급격히 세력을 확대하자 사우디의 체면이 깎이고 있음
 - 이 때문에 샤리아법을 더욱 강력히 시행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옴
- 같은 수니파이면서 GCC 내 협력국가인 UAE와 카타르가 오일머니와 정치적 리더십, 개방성과 혁신성으로 영향력을 높이면서 사우디에 도전
 - 사우디의 인당 GDP가 25,400 달러인데 반해 UAE는 44,770 달러, 세계 최대 가스 매장국가이자 생산국가인 카타르는 94,740 달러 수준
 - 개방성이 높은 UAE 두바이는 3T(Trade, Transportation, Tourism) 분야를 기본으로 고부가 서비스 산업을 육성 중(2020년 Expo 개최 예정)
 - UAE 최대 에미레이트인 아부다비는 금융과 관광업에 특화하고 있으며, 루브르, 구겐하임 등 세계적 박물관을 유치하는 등 문화강국으로 도약
 - 카타르는 이집트, 튀니지, 예멘에서 무슬림형제단을 지원하여 정권 교체를 이루어냈는데, 독재자 편을 든 사우디와 갈등 초래
 - 또한 카타르는 아랍권을 대표하는 방송사인 알자지라를 운영 중이며, 2022년에 FIFA 월드컵을 개최할 예정

3. 우리 기업에 대한 시사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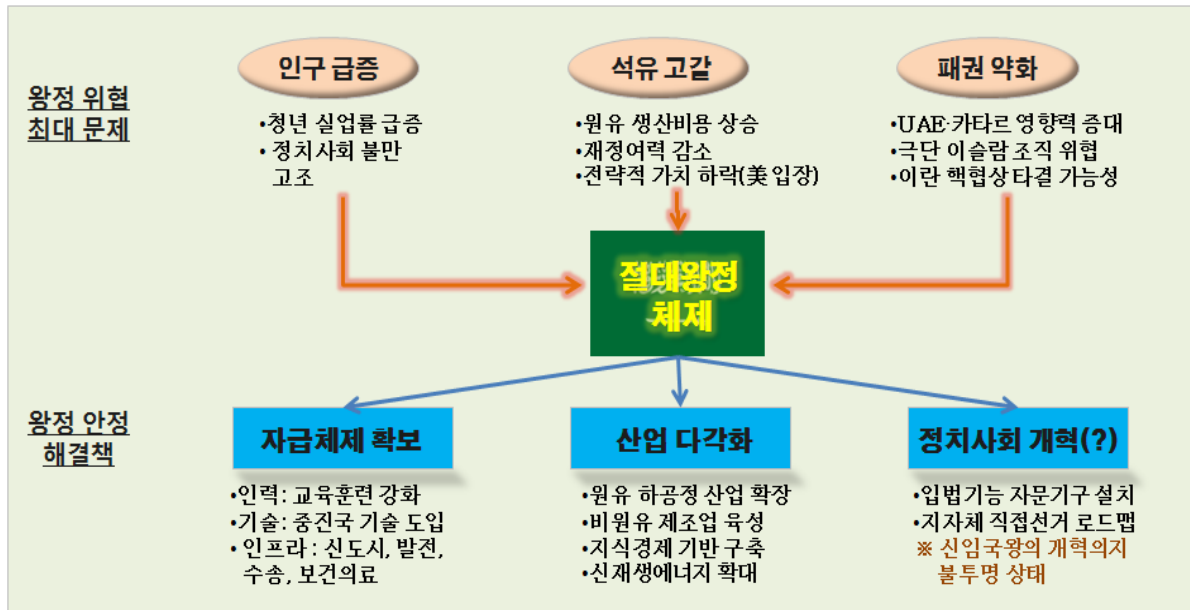
□ 사우디에 대한 ‘7가지 진실’을 바탕으로 리스크 요인을 철저히 분석해 중장기적인 진출전략 수립 필요

- 현재 사우디 왕정을 위협하는 최대 문제는 인구 급증에 따른 높은 실업률, 석유 고갈 위험, 역내 패권 약화로 요약될 수 있음
 - 이에 대해 그 동안 사우디 정부는 산업 다각화, 인력·기술·인프라 면에서의 자급 체제 확보, 정치사회 개혁 추진 등으로 대응해옴
 - 그러나 신임 살만 국왕이 보수성이 강한 데다 아직까지 개혁의지를 보이지 않아 정치사회 불안 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음

□ 첫번째로, 사우디에 대한 진출전략 수립 시 막연한 낙관적인 시장 전망은 금물이며,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함

- 자급체제 확보와 산업다각화 정책이 성공하지 못할 가능성과 함께 정치사회 개혁이 후퇴할 경우 사업 리스크가 커질 수밖에 없음
 - 최근 급락한 국제유가 동향과 전망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, 정치사회 동향도 주목 필요
 - 또한 사우디 정부의 급작스러운 제도 변경과 시행 등에 유념(2013년 말 Nitaqat 제도 시행 사례)

<사우디 아라비아의 3가지 현안 및 해결방향>



자료: 저자 작성

□ 두번째로, 건설 프로젝트 발주처, 합작 파트너, 무역 거래처 등 사우디 기업과 사우디 인에 대해 철저히 성향을 분석하고 대응해야 함

- 아랍 상인 기질을 가진 사우디 인은 ‘信義’ 유지보다 자신들의 이익 확보를 최우선적으로 생각
 - 사우디 발주처는 경매방식의 입찰제도(최저 입찰가격을 공개하고, 2~3위 입찰기업에게 더 낮은 가격을 써낼 수 있는 지 확인)를 운영
 - 자연재해도 인정하지 않는 일정 관리와 약간의 품질하자에도 패널티를 부과하고 있어 글로벌 건설사에게는 악명이 높음
- 제조업 분야에 진출할 경우에도 ‘진정한 제조(모노츠클리)’에는 관심이 없고 판매와 수익만 챙기려는 파트너사에 유의 필요
 - 사우디 기업들은 외국 제조업체의 기술과 역량을 도입하여 제조공장에 투자하지만 기술개발이나 품질향상에는 관심이 없고 마진에만 관심
 - 정부 육성산업의 경우 산업개발기금(SIDF)이나 공공투자기금(PIF)을 통해 장기 저리의 자금 확보가 용이하기 때문에 사업 추진은 활발

□ 세번째로, 우리 기업들이 앞으로 사우디에 진출할 경우 차별화 포인트를 찾을 필요가 있음

- 진출업종에서 차별화 : 사우디 정부의 산업정책 방향에 맞는 새로운 분야 공략 필요
 - 특히 5대 클러스터 산업에서 중소기업들이 협력할 수 있는 분야를 찾을 필요가 있음(태양에너지 산업에서 KCC의 폴리실리콘 공장 투자사례)
 - 사우디는 기술이전이 가능한 중진국과 협력하기 위해 ‘Look East 정책’을 추진 중이며, 정치적 이해관계가 없는 한국과 협력 선호
 - 사우디 정부가 예산의 50% 가까이 지출하는 교육과 의료 분야에 진출(서울대병원이 SKT와 협력하여 병원정보시스템 수출계약 사례)
 - 건설업종에서도 경쟁이 치열한 화공과 발전 플랜트 이외에 틈새공종을 노릴 수 있음(현대건설은 송배전 분야에 집중해 양호한 수익 확보)
- 진출방식에서 차별화 : 플랜트 수주에서는 이미 ‘샌드위치 경쟁’ 상태이기 때문에 혁신적인 진출방법 모색이 필요
 - 삼성물산은 EPC + 지분참여의 새로운 방식을 통해 대규모 민자발전(IPP) 수주를 두 건 확보
 - 포스코건설은 공공투자기금을 진출 지렛대로 활용하여 상호 니즈를 충족
 - 포스코는 PIF와 합작으로 건설사를 설립하여 현지 건설수요에 대응 및 기술을 이전하고, PIF는 포스코건설 지분을 매입하여 재무건전성에 기여

□ 네번째로, 사우디 진출에 대한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글로벌 사업 역량을 키우고 현지시장을 직접 경험 학습하는 것이 바람직

- 그 동안 대규모 건설인력이 사우디에 파견되었다가 돌아왔지만, 건설업 이외에 사업 환경에 대한 시장지식은 거의 축적되지 못함
 - 사우디 정부와 기업도 정보 공개에 매우 인색하고 아랍어로 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역전문가를 육성해 ‘사우디통’을 확보해야 함
 - 또한 활동 제약이 있기는 하지만 현지에 수개월 씩이라도 직접 파견 나가 실제 시장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리스크 예방에 도움
 - 특히 시장수요와 경쟁구도에 대한 조사 이외에 파트너 후보기업의 상세한 현황 파악과 경영진 성향까지도 현장에서 확인하는 것이 필요

[참고자료]

[단행본]

매튜 R. 사이먼스, 「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의 비밀」 2007

한국수출입은행, 「2015 세계국가편람」 2015

KOTRA, 「투자실무 가이드 - 사우디아라비아」 2014

[보고서]

국제금융센터, “국제 원자재 시장 동향 및 전망” 2015.2

KOTRA, “사우디아라비아의 대표적 투자장벽 - 사우디제이션의 현황” 2015.1.15

Gulf, “Saudi Arabian Succession : Initial Thoughts” 2015.2

Jadwa Investment, “Saudi Arabia’s 2015 fiscal budget” 2014.12.28

Jadwa Investment, “The Saudi economy in 2015” 2015.1

IMF, “Regional Economic Outlook – Middle East and Central Asia” 2014.10

IMF, “Saudi Arabia - 2014 Article IV Consultation—Staff Report; Press Release” 2014.9

[홈페이지]

국제금융센터(www.kcif.or.kr)

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(www.icak.or.kr)

ARAMCO(www.saudiaramco.com)

IHS(www.ihs.com)

KOTRA(www.kotra.or.kr)

단국대학교 GCC국가연구소(<http://gcc.dankook.ac.kr>)

U.S.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(www.eia.gov)

[언론]

매일경제, “건설업계 ‘사우디제이션 쇼크’” 2015.2.5

한국일보, “건설사들 해외 실적 쇼크에 허우적”, 2015.1.30

이데일리, “사우디, 원유 정제능력 늘린다. 세계 2위 수출국 목표”, 2015.2.26